

일주문



생명·윤리관 특강
인드라망생명공공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7월 12일 오후 7시 보현불교대학에서 '불교의 생명·윤리관'을 주제로 강연한다. (042)624-6555



'유심 문인들의 모임' 초대 회장에
실천불교승가회 공동의장 효림 스님은 6월 24일 계간 문예지 <유심> 신인상을 통해 등단한 문인들의 모임인 '유심 문인들의 모임'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하염경 보현행원품' 강의
홍익소아과 이종민 원장은 7월 6일 서울 대한불교대학 지하강의실에서 '하염경 보현행원품 및 보현행원 수행법'을 강의한다. (02)2659-8790



'홀리스틱 요가프로그램' 개설
서울불교대학원대학 황윤식 총장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교내에 '교사와 아동을 위한 홀리스틱 요가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어린이 포교의 '마당발' 이성훈씨 급성백혈병

불교계 최초의 1급 청소년 지도사이며 20여년간 어린이 포교에 헌신해 온 불교계 크리에이티브포교회 이성훈 연구위원(사진)이 급성 골수성백혈병으로 투병중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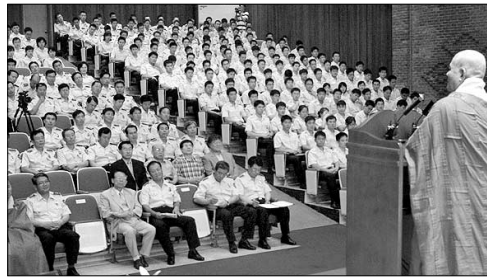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항암치료중인 이성훈 연구위원은 현재 1차 치료 중 폐출혈이 생겨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 부인인 이미애씨는 "3차례의 항암치료가 남았는데 출혈이 많아 현혈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훈 위원은 최근 박사논문을 쓰는데 전념하면서 이벤트 활동도 중단해 병원비도 부족한 상황이다.

문의 : 011-9026-4468, 계좌번호 농협 1088-12-014311(예금주 이미애) 김원우 기자

"본래마음 지켜야 행복한 삶"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6월 29일 용인에 있는 국립 경찰대학교(학장 송연동·치안장감) 강당에서 경찰대 학생과 교육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법문을 했다. 이날 법문은 사회저명인사 초청특강 형식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찰대 3·4학년 생도들과 치안정책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총경들이 참석해 약 1시간 동안 지관 스님으로부터 불교가 추구하는 행복의 참된 의미를 경청했다. 1979년 경찰대에 생긴 이래 스님이 재학생들을 위한 특강 자리에 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관 스님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식에서 사투한 마음을 누르고 다스릴줄 알아야 한다"며 "종교인, 경찰, 의사, 교수 모두 인간이기에 실수하지 않고 살기 어렵지만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를 지키겠다(守我本心)는 의지를 갖고 탐욕에 이끌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불교 대표하는 권위있는 상으로"

불교언론문화상 대표에 위촉 수불 스님

"불교언론문화상이 사회와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사진)은 6월 28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불교언론문화상 대표 위촉장을 받고, 이 상을 사회와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상으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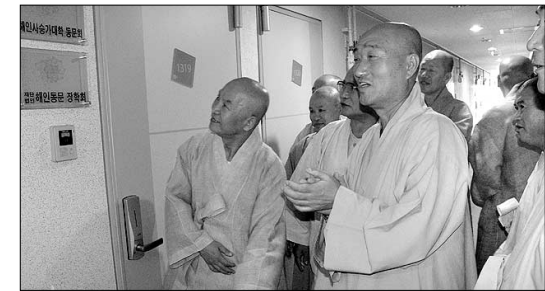


불교언론문화상은 1993년 시작된 '보리방송문화상'이 지난해 조계종과 공동주최 형식으로 변화하면서 이름을 바꾼 것. 지난 10여년간 수불 스님은 이 상이 유지되도록 재정적 후원과 방향성 제시 등에 큰 역할을 해왔다.

라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에 부끄럽지만 소임을 맡게 됐다"는 수불 스님은 "불교언론문화상이 불교를 널리 알리고 사람을 키우는 사회적 공익(公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경찰대서 특강

해인동문장학회 현판식 및 이사회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일민)는 6월 30일 서울 수송동 두산위브 파빌리온 1319호에서 재단법인 해인동문장학회 현판식과 이사회를 개최했다. 해인동문장학회 이사장 일민 스님은 "해인승가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여러 학인스님 1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륜중, 전물장병 위령제 및 영산제



(재)한국불교법륜중은 6월 23일 충남 보령 개화예술공원에서 한국전쟁 전물장병 위령 및 영산제를 봉행했다. 법륜중은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종정 정각 스님의 법어와 총무원장 고산 스님의 추모사, 이시우 보령시장의 추도사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보명 스님을 법주로 영산제가 시연됐다.

시경심인당 금강회, 위덕대에 대학발전기금 전달



진각종 시경심인당(주교 경당) 신도회인 금강회(회장 이학순)가 진각종법주대학 위덕대에 대학발전기금 487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이 이학순 금강회 회장, 가운데는 위덕대 한재숙 총장, 오른쪽은 "은혜나누기 운동"으로 조성된 기금의 가장 좋은 회향처는 교육 불사"라고 말했다.

부산불교거사리학회 창립 34주년 기념법회



부산불교거사리학회(회장 배호암)는 6월 27일 동서 부산포교당 3층 법당에서 창립34주년 정기총회 및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법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부처님 법은 읽고 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데 있다"고 법문했다. 이날 배호암 회장의 유언이 결정됐다.

대원불교대 제2차 총동문회 발족



대원불교대학 대학원(학장 허경규)은 6월 24-25일 서울 불교방송 3층 다보원 법당에서 2006학년도 하계스쿨링 및 제2차 총동문회(회장 박재근) 발족식을 거행했다. 2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의 특강에 이어 총동문회 임원 위촉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02)707-1072

"부처님이 좋아 월드컵 안 보고 한국 왔어요"

매년 방한해 신심다지는 독일불자 투밀씨 가족

"한국은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불자를 만나면 저절로 마음자리가 열리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월드컵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6월 20일 한국을 찾은 독일불자 가족이 있다. 출가 투밀(43)씨와 부인 키스틴(40), 아들 요나스(6), 투밀씨 가족은 4년 전부터 해마다 한번씩 한국을 찾는다. 출가씨는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은 곳이 없었다"며 "불교를 만나면서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았다"고 소개했다.

알뜰 중독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던 출가씨는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장(지원장 혜진)에 걸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다'라는 현수막을 보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고 한다. 불교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고, 법당에서 자원봉사하며 '마음 보기' 공부를 했다.

출가씨는 "마음찾는 공부를 통해 독일인 특유의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사고로 사물을 보던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며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면



하국을 찾은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장 혜진 스님과 투밀씨 가족.

서술에 대한 미련이 끊어졌다"고 말했다. 부인 키스틴씨도 "한국에서 불자들과 만나는 일주일은 독일에서 1년을 지내는 에너지원이 된다"며 "마음"을 보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스승과 도반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이준엽 기자

"불교관계법 제·개정 예산 확보에 주력"

국회정각회 새 회장 이해봉 의원

"자연공법과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등 불교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불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하겠습니다."

6월 30일 조계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국회 정각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사진)은 불자의원들의 '제자리 찾기'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래서 "정치에는 여야가 있지만 정각회에서는 여야를 초월해 불교 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심은 있으나 교리공부와 수행이 부족하다"고 밝힌 이 회장은 "여러 대덕 스님들의 말씀대로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실행활동을 펼치는 것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사찰성지순례 등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철주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5일개강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9기생을 모집함

Table with 2 columns: 1년 교과목, 2년 교과목. Lists various Buddhist studies courses.

Table with 6 columns: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Details the admission process.

4. 입학 일시 불교학과 : 2006년 8월 5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 불교미술학과 불교장제문화학과 : 2006년 9월 5, 6, 7일 개강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특전사항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 여름 대 설법회

불교(佛敎)란 무엇인가?

(What is The Buddha Teaching?)



무진장르스님, 활안르스님, 박원일 교수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지 어언 1700여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갖고도 정법불교, 생활불교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IT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컴퓨터 시대, 과학 시대의 최첨단의 생활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불교도들은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불교의 진면목을 몰으면 머뭇거리습니다. 우리들 중생의 갖가지 고(苦)를 가장 적절히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은 Buddha의 가르침(佛敎)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부처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Table with 4 columns: 일시, 설법 주제, 법사, 장소. Lists the schedule for the Buddhist Summer Lecture.

본대학교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 732-1206~8